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 휴대전화 스마트폰 값도 신형 선호

한국이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 평균 판매가격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작년 한국의 휴대전화 평균 판매가(ASP·Average selling price)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415달러(약 46만1000원)이었다. 전 세계 평균인 166달러(약 18만5000원)보다 2.5배나 높은 수치다. 2위는 390달러를 기록한 일본이었으며 캐나다(350달러), 미국(323달러), 노르웨이(281달러), 덴마크·독일(이상 278달러), 룩셈부르크·스웨덴(이상 275달러), 호주(270달러) 순이었다. 반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휴대전화 ASP가 가장 낮은 나라였다. 두 나라의 휴대전화 ASP는 각각 55달러와 56달러였다. 보고서는 2017년까지 각 나라의 휴대전화 ASP를 예측했는데, 한국의 ASP가 이 기간 내내 다른 나라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ASP가 높은 것은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 중 스마트폰 비중이 높고 얼리어답터(Early Adopter)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무등산 '들개 경계령' 유기견들 떼지어 다니며 산짐승 잡아먹어 동적골 등 출몰 등산객 위험... 포획 나서

연간 800만명의 등산객이 불리는 무등산 국립공원 주변에 '들개 경계령'이 내려졌다. 버려진 개들이 무등산에 몰려 무리지어 돌아다니면서 산짐승을 잡아먹고, 야생에서 새끼를 낳는 등 개체 수를 불려가고 있어서다. 급기야 공원 측은 야생(野性)을 띠어가는 유기견들이 등산객들을 위협할 수 있고,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들개 포획 작업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관리사무소는 29일 "무등산 옛길 서석대 입구 목곡(해발 900m)과 원효사 계곡 주변(약 370~380m), 동적골(약 200

m) 등에 몸집이 1m, 몸무게 30kg에 달하는 들개들이 6~8마리씩 무리지어 출몰하고 있다"면서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들개와 마주치면 일단 자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무등산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들개는 야성이 강해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소리를 지른 다거나 달래기 위해 먹을 것을 던져주면 되레 흥분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람이 드문 새끼를 피해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무등산 들개는 버려진 개들이 대부분으로, 셰퍼드 같은 품종도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개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6~8마리씩 무리지어 다니며, 무등산에 서식하는 몸집이 작은 설치류를 비롯해 광·노루·고라니 등 동물들을 사냥해 먹은 흔적 등도 발견됐다. 개 무등산관리사무소측 설명이다. 등산객 정승현(38·광주시 서구 염주동)씨는 "해질 무렵 홀로 등산을 하는데, 30m 떨어진 비탈길에 들개 5마리가 쳐다보고 있어 깜짝 놀랐다"며 "큰 나무 주변으로 몸을 숨겼다가 들개가 완전 사라진 뒤에야 산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관리사무소측은 들개들이 점점 야성화되고 있는데다, 등산객들이 버린 음식과 인근 주택에서 나온 음식물 등을 먹으며 등산로와 능선 등을 따라 서식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등산객들에게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잇단 출몰 지역에 '들개 출현'을 알리는 경고 간판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무등산관리사무소는 이미 지난달 무등산 들개가 낳은 새끼 4마리를 포획,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도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산강 탐사 옷 염색했어요" 영산강 대탐사에 참가한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이 29일 오후 장성 전남대 수련원에 모여 탐사기간 동안 입을 옷을 직접 천연 염색한 뒤, 건조장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번 탐사는 '공존공생 강과 사람이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4박5일간 영산강 일대에서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0분, 해질 19시 38분, 달출몰 1시 1분, 달정지 13시 24분. 곳곳에 많은 비.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흥, 순천, 영광, 전주, 군산, 남원, 옥산도. <Table with weather details for various regions and a forecast table for the week.>

나주 '고종석 사건' 그후 1년

지난해 8월 30일 나주에선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이 사건은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면서 범죄 뒤에 가려진 피해자의 고통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쏟아졌지만, 공명불에 그쳤다. 고작 남은 것은 피의자 고종석이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피해 아동·가족들이 받은 시효없는 범죄의 상흔뿐이다. <피해 가족, 심신 안정 치료중= 피해 아동·가족들은 끔찍한 악몽을

피해아동·가족 '끔찍한 악몽짓기' 치료 집중

CC-TV 설치하고 상처 치유 벽화 조성 등 '흔적지우기' 총력. '의상중심 인지행동치료'(8단계·18주 과정)가 이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A양의 어머니도 A양과 함께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버지는 광주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모 기관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받고 있다. 대개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선 놀이·모래·미술프로그램을 이용한

의 상처 치유를 위한 거리 변화가 조성됐다. 나주시지 봉사단체인 '나주매갈'은 최근 나주시 삼영동 영강초교 앞길부터 영산동 영산교 흥어축제장 입구까지 약 1.9km 구간에 '아이 사랑 희망 그리기'를 담은 벽화를 만들었다. 사건 현장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나주경찰은 오는 9월 초 나주시로부터 7억5000만원의 지원받아 방범용 CC-TV 4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놀이터 등 아동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CC-TV 14대를 추가로 단다는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통사고 가벼운 부상도 경찰 신고해야 보험 혜택

정부, 관련법 개정 추진. 정부가 보험사기 예방 등을 위해 교통사고에 의한 가벼운 부상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피서지 바가지요금 예방

지방 자치단체 인센티브. 안전행정부가 피서지 바가지요금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경욱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CS룸에서 주재한 17개 시도·물가관계국장 회의에서

Large advertisement for HNT HanaTour. Includes logos for HNT, London Stock Exchange, and HanaTour. Text: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주세요!'. Features various travel packages like '마카오 & 홍콩', '세부', '미등부 캐나다', '아나기와 뱃놀이 카멜리아', and '골프 챌린지 투어'.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www.HanaTour.com.